

Merck, 전자 성장호르몬 주사기 출시

한국Merck는 재조합 성장호르몬 결핍 치료제인 싸이젠(소마트로핀)의 투여를 돕는 성장호르몬 주사 기구 이지포드(EasypodTM)를 출시한다고 9월9일 발표했다.



이지포드TM은 매일 투여하는 성장호르몬 치료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는 세계 최초의 전자 성장호르몬 주사 기구로, 용자들의 직접적인 불편함을 해소시키고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고안됐다.

이지포드는 간편한 3단계 과정으로 하루 1회 소아 및 성인의 피하주사에 사용되며, 통증과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한번의 용량 설정으로 매일 쉽고 간편하게 투여할 수 있으며, 자동 용량 조절을 통해 호르몬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전문가가 사전에 정확한 용량을 설정해 정확한 양을 투여할 수 있으며, 투약 기록 시스템을 통해 투약 준용도를 확인해 투약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바늘이 숨겨져 있어 주사바늘에 두려움이 있는 소아 환자들에게 보다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지포드TM은 유럽에서 승인돼 이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태리, 독일에서 시판되고 있으며, 환자 및 의료진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2008년 10월 승인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9/10>